

호랑이 봄 기지개

KIA 오키나와 캠프 56명 발표...내달 1일부터 훈련

호랑이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봄 기지개를 켜다.
KIA 타이거즈는 25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스프링 캠프 일정과 참가 선수단 명단을 발표했다.

선수단은 오는 2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킨 구장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4명, 선수 42명 등 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투수는 군복무를 마친 박지훈과 박경태 등 21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포수 세 자리에서 한 자리는 무릎 인대 수술로 재활 중인 백용환을 대신해 신인 이정훈이 차지했다.

지난 11월 윈 허벅지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던 김주찬은 외야수가 아닌 내야수로 배치됐다. 올 시즌 루키 김석환을 비롯한 최원준, 김규성, 류승현 등 '2년차' 신예 선수들이 경쟁한 선배들과 경쟁을 한다. 최형우가 버티고 있는 외야 명단에는 '예비역' 이준호가 4년 만에 이름을 올렸다.

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캠프 초반 체력 및 기술, 전술 훈련에 집중하는 선수단은 6일 라이브 피칭, 10일 자체 흥행전을 통해 실전 준비에 나선다.

KIA는 14일 아쿠르트(우라소에 구장)와의 대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전 체제와 주전 경쟁이 전개된다. 15일 주니치(차탄구장), 16일 니혼햄(나고 구장), 18일 라쿠텐(킨 구장), 20일 요코하마(기노와 구장), 23일 히로시마(오키나와 구장) 등 일본 팀과 6차례 연습경기가 예정됐다.

KIA는 이후 27일 한화(킨 구장), 28일 넥센(킨 구장), 3월2일 롯데(킨 구장), 4일 삼성(아카마 구장) 등 국내 팀과 4차례 연습경기를 갖는다.

▶2017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명단

▲코칭스태프(14명) : 김기태, 조계현, 박홍식, 코우조(소다고조), 김민호, 김태룡, 김중국, 이대진, 홍우태, 타케시, 박종하, 배요한, 정상욱, 고영득 ▲투수(21명) : 양현종, 임창용, 김광수, 김진우, 고효준, 한기주, 손영민, 박경태, 김중훈, 박지훈, 손동욱, 심동섭, 홍건희, 한승혁, 김명찬, 김윤동, 임기영, 김현준, 박진태(신인), 핵터, 팻단 ▲포수(3명) : 이흥규, 한승태, 이정훈(신인) ▲내야수(11명) : 김주찬, 이범호, 서동욱, 김주형, 김선빈, 안치홍, 이인행, 최원준, 김규성, 류승현, 김석환(신인) ▲외야수(7명) : 최형우, 신종길, 나지완, 이준호, 버나디나, 노수광, 이진영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평양 가는 여자축구, 세대교체는 다음에...

2018 아시안컵 예선 북한과 한 조...전 경기 평양서 치러

조1위만 본선...윤덕여 감독 "다음 기약없는 절박한 상황"



지소연

박은선

"2015년 캐나다 월드컵을 마치고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려 2019년 프랑스 월드컵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기존에 호흡을 맞췄거나 경험 있는 선수들의 선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자축구대표팀 사령탑인 윤덕여 감독은 2018년 여자아시안컵 예선 조 추첨 결과를 받아든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대표팀 '세대교체 실험'을 잠시 미뤄야 하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자 대표팀은 여자 월드컵 본선 출전의 관문인 아시안컵 예선에서 '아시아의 강호' 북한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인도와 같은 B조에 편성됐다. 설상가상으로 예선 경기는 모두 북한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 축구의 평양 원정경기는 타이틀 대회로는 남녀와 청소년 대표팀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B조 1위에게만 아시안컵 본선 직행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북한을 넘지 못하면 월드컵 출전 꿈도 물거품이 된다. 본선 출전권이 사실상 결정되는 남북대결은 4월 7일 벌어진다.

북한은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랭킹 10위로 한국(18위)보다 한 수 위의 전

력으로 평가된다.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한국이 북한에 1승2무14패로 절대적 열세다. 더욱이 북한 평양 원정 경기에 따른 선수들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때문에 윤 감독은 평양 원정의 압박감을 견뎌낼 경험있는 선수들의 선발을 적극 고려할 생각이다.

최근 대표팀에서는 빠져 있던 베테랑 골키퍼 김정미와 수비수 심서연, 황보람, 김도연이 우선 체크 대상이다. 한때 여자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박은선도 선발 구상에 들어있다.

그는 "박은선은 소속팀에서 수비를 봤기 때문에 (대표팀에 선발됐을 때는) 수비보다 공격에서 위협적인 면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경기력과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천대교 소속인 박은선은 작년 10월 인천현대제철과 여자축구 챔피언결정전 2차전 때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됐지만 현재 거창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 연습경기에 뛰고 있다. 윤 감독은 박은선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한 뒤 코치진과 협의해 발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987년생 동갑내기 류현진(왼쪽)과 황재균이 25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재활훈련을 한 류현진은 애리조나에서 개인훈련을 하며 스프링 캠프를 준비한다. 샌프란시스코와 1년 계약을 한 황재균은 입단절차를 마무리하고 애리조나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KIA 김선빈·MC 이슈 오늘 복지관에서 떡국 나눔

KIA 내야수 김선빈과 장내 아나운서 MC 이슈가 떡국 나눔으로 새해를 맞는다.

김선빈은 26일 오전 11시 MC 이슈와 광주금호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다. 영광술빚떡마을, 무스투스애그와 함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따뜻한 새해를 위해 떡국 100인분과 송편 100인분을 준비했다. 식사 후에는 레크리에이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빈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기분 좋게 행사에 참여할 생각이다. 와이프도 좋은 일이라고 흔쾌히 함께하기로 했다. 이제 곧 캠프인데 기분 좋게 새해를 맞고 시즌 준비하도록 하겠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프로야구 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준비한 광주 출신의 MC 이슈는 "KIA타이거즈를 통해 받은 관심과 사랑을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MC 이슈는 지난 12월 KIA 팬들과 함께 광주 동명동 지역에 연탄 3000장을 구매, 배달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몸 상태 100% 자신감”

LA 류현진 “통증 없어 좋아...선발 로테이션 진입 목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의 5년 차 시즌을 앞둔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재기를 다짐하며 미국으로 향했다.

류현진은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지난해 11월 입국한 류현진은 국내에서 재활을 진행하다 이달 6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훈련하기 위해 잠시 한국을 떠났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변을 정리한 뒤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013년 KBO리그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한 류현진은 2년 연속 14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2015년 스프링캠프부터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그해 5월 어깨 관절염 수술을 받는다.

2015년 재활에 힘쓴 류현진은 지난해 7월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를 통해 빅리그 마운드에 복귀했다. 하지만 4.2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부진했고, 다음 등판을 준비하다 이번에는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다. 결국 류현진은 왼쪽 팔꿈치의 과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16년을 마감했다.

그동안 인천공항을 수차례 드나들면서 인터뷰를 사양했던 류현진은 출국해진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얼마나 체중을 감량했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췌장”이라고 답한 류현진은 “올해는 작년 복귀전 때보다 몸 상태가 좋다. 지금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 이상”이라고 자신했다.

2년 동안 재활에만 전념한 류현진에게 올봄은 자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그는 “2013년 처음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때와 같은 마음이다. 올해 첫 번째 목표는 선발 로테이션 진입이고, 그 다음은 부상자명단에 올라가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는 것”이라며 “불편 피칭도 4번 정도 했고, 투구 수는 50개 정도까지 늘렸다. 통증은 없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에 3일가량 머무르고 팀 스프링캠프가 위치한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에 이동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SF 황재균 메디컬 테스트 위해 출국 “장타력 보여줘 살아남을 것”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은 “자신감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디뎠다.

황재균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그는 스포츠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네리그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계약)을 맺은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 이후 애리조나에서 개인훈련을 한 뒤 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쳐야 하는 그는 “나는 도전하는 입장이다. 꿈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황재균이 맺은 계약은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자격이 포함된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개막 25일 로스터에 진입할 시 보장 연봉 150만 달러에 인센티브 160만 달러가 붙는 조건이다. 지난해 시애틀 매리너스와 스플릿 계약을 한 이대호(현 롯데 자이언츠)의 보장액

이 100만달러인 걸 감안하면, 황재균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스프링캠프에서의 경쟁이다. 황재균의 포지션인 3루에는 에두아르도 누네스가 버티고 있다.

황재균은 “나와 같은 포지션의 선수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파악한 뒤 내 장점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 같다. 팀에서 기대하는 장타력을 보여줘 반드시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며 “구단에서 내 영어 실력과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 타격폼을 교정한 점을 높이 평가해줬다. 자신감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황재균은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 등 동갑내기 메이저리거들에게도 조언을 많이 구했다.

그는 “가장 많이 해준 얘기가 타석에 많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에 적응만 하면 한국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 (이)대호형은 애리조나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보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4일 개막...26일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5일 2017 KBO 타이거즈 시범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호랑이 군단’은 홈에서 10경기를 치른다.

이번 시범경기는 3월14일 개막해 26일까지 계속된다. 팀 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편성됐으며, 챔피언스필드에서는 10경기가 진행된다.

14·15일 두산과의 대결로 몸을 푸는 KIA는 kt(16·17일), SK(18·19일), 삼성(21·22일)과 홈 8연전을 갖는다. KIA는 이후 23·24일 대전을 찾은 뒤, NC(25·26일)와의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연장전 및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취소된 경기는 재편성 되지 않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